광주 ‘ 문화와 빛, 첨단이 어우러지는 경관 꾸미기 ’

- 주택7만호건설,‘ 건축디자인도시 - 광주 ’운동추진 -

재선에 성공한 박광태 광주시장의 건설 관련공약은민선3기의사업을이어가면서 ‘ 광주 문화 중심 도시 ’의 특성을 살려내는 것으로모아진다. 즉, 아름다운도시공간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이를구현하기위한핵심 공약은 간결 · 깨끗 · 매력을 갖춘 경관 형성 시범지구 조성,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 · 야간 경관 도시 실현, 주거 환경 최고 도시 실현,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금남로 프로젝트 계획 추진 등 5가지이다.

아름다운 도시 공간 연출

우선박시장이내놓은공약가운데경관 형성 시범지구조성을위한주요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광주 수완지구와 첨단2지구, 효천 역세권 등을경관시범지구로지정해광주경관브랜드상징지역으로부각시킨다. 이를위해주민자체협의회를구성, 실천체계를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역사 문화 경관 가꾸기를 통해 의향 정신과 5 · 18 등을 주제로 한 건물이나현장을보전활용하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시내 구간과 푸른길 공원, 광주천, 사직공원 등 인근 보행자 네트워크를구축할계획이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박 시장이 공약한 정책은 건축 디자인을 도입하고 야간경관을조성하는것이다. 수준높은건축 디자인도시를만들기위해‘ 건축디자인도시 - 광주 ’ 운동을 벌이고 기존에 진행 중인 광주건축문화제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공공건물을건축할경우국제현상설계로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키우고 미관 향상을위한제도개선도다자인이숨쉬는도시 건설의 방법이다. 박 시장은 특히, 빛의 도시 광주를 부각시키기 위해 금남로, 광주천 등 8개 권역을 야간경관지역으로 연출하고민간부문대형건축물의야경연출도 적극유도할계획이다.

주거환경최고도시를실현하는것도추진된다. 박 시장은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민간 부문 5만호, 국민임대1만호, 주거환경개선1만호등주택7만호건설을약속했다. 이를 위해 적정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추진된다.

박 시장의 주택 건설 정책은 주택 7만호 건설에그치지않고품격높은친환경 주거 단지를조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을 테마타운형단지로조성하는 것이다. 그린주거단지, 생태 주거단지, 예술 주거단지, 문화 주거단지등이좋은예이다. 택지조성과정부터 특성화 사업 추진을 겨냥하도록 하고 주택단지의공공 용지확보비율을확대하는 것 등도 품격 높은 주거 환경 조성의 실천전략이다.

금남로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중심 거리인 금남로를문화가숨쉬는거리로조성하는‘ 금남로 프로젝트 ’가 추진된다. 이는 차선 축소, 공원조성, 야간경관, 체험거리, 건축미관 조성 등을 통해이뤄진다. 금남로를무등산

민선4기 광주의 건설 정책은 매력적인 경관 조성과 건축 디자인도시실현등 ‘ 문화중심도시 ’를건설하는데모아진다. 사진은금남로프로젝트조감도.

과푸른길공원, 광주천, 사직공원과친환경 축으로 연결하는것은물론이다. 금남로 인근의 충장로를 쇼핑 패션의 거리로 특화하고예술의거리는예술인 창작촌으로, 서석로는영상문화거리로, 그리고동구청로터리는 IT 거리로 탈바꿈시켜 입체적인 금남로프로젝트를완성시킨다는계획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민선 4기 건설 정책은문화와빛, 첨단이어우러지는경관꾸미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며 “ 이는 파트너십과 시민 참여에 의한 방법으로추진될것 ”이라고말했다.

여균수
무등일보차장